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



www.asan-nanum.org

CONTENTS

04 아산 정주영 Asan Chung Ju Yung

06 명예이사장 인사말 Honorary Chairman's Message

07 이사장 인사말 Chairman's Message

08 비전/미션 Vision & Mission

10 주요사업 Core Areas of Work

청년창업 활성화 Promoting Youth Entrepreneurship

글로벌리더 양성 Fostering Global Leaders

18 함께한 사람들 Contributors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share Asan's unrelenting spirit and
determination with the young adults today: the passion to dream, the challenge to
create, and the responsibility to share.



아산 정주영

“소학교 졸업이 내 학력의 전부이고, 평생 일만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어떤 고귀한 철학도 터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과 소년 소녀들에게 확고한 신념 위에 최선을 다한 노력만 보탠다면 성공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타고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싶다.”

-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中

아산 정주영 (1915-2001)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은 강원도(江原道) 통천군(通川郡) 송전면(松田面) 아산리(峨山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이 현대화 되는 과정에 큰 족적을 남긴 창조적 기업가입니다.

아산은 한국전의 폐허를 딛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창설하였고, ‘현대건설’을 설립하여 중동 주베일 산업항 공사, 서산방조제 건설 등 국내외 많은 역사적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아산은 '88 서울 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1998년에는 소 떼를 몰고 방북하여 분단이래 최초로 휴전선을 개방, 남북교류의 불씨를 뒀습니다.

아산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1968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에 학교가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시작했고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아래 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장학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1989년에는 서울아산병원을 개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11년 10월, 아산 정주영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창업자 가족들과 관련 기업들이 아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꿈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 only finished elementary school. I spent my whole life working so hard that I never had the chance to develop any wise philosophy to impart onto others.

Nonetheless, I would like to urge the young men and women who are responsible for our country’s future to remember that success is always available to those who strive to do their best.”

– Excerpt from Chung Ju Yung’s autobiography, Born In This Land (1992)

Chung Ju Yung (1915-2001)

‘Asan’ Chung Ju Yung was born the eldest son into an impoverished farming family in the small village of Asan in Songjeon Township, Tongchun County, Gangwon Province in the Japanese-occupied, present-day North Korea. Known for his entrepreneurial spirit and relentless determination, he was a visionary whose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left an indelible imprint o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On the ruins of the Korean War Asan founded the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and later Hyundai Motors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as responsible for world-renowned projects such as the Jubail Industrial Harbor in Saudi Arabia and the Seosan Reclamation Project in Korea.

As chairman of South Korea’s Olympic bidding committee that won the right to host the 1988 Summer Olympics in Seoul, Asan raised South Korea’s global profile and fostered a deep sense of pride among the Korean people. In 1998, he crossed the ceasefire line separating the two Koreas, the first civilian to do so since the Korean War, bringing with him a herd of cows to deliver to North Korea. With this symbolic gesture, Asan opened a new era of peacefu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war.

Asan believed in corporate responsibility to share profits with the rest of the society. Convinced that education was the key to alleviating social problems as well as assisting community development, Asan founded the Community Schools Movement in 1968, at a time when the notion of social welfare was still in its infancy. In 1977, he founded the Asan Foundation with the goal of “assisting the most needy among our neighbors.” The Foundation has since become Korea’s largest philanthropic organization offering medical, soci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those in need. The Foundation set up hospitals in remote rural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hat lacked medical facilities, and founded the Seoul Asan Hospital in 1989, which has grown into a world-class medical facility.

The Asan Nanum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by Dr. Chung Mong Joon,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Asan’s passing. With generous contributions from Asan’s family members and affiliated companies,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carry on Asan’s legacy of philanthropy.



명예이사장 인사말

1977년 선친께서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병원들을 세우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기업의 바탕이 되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야 기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지피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나, 그만큼 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개 재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하는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모든 기업의 일이며, 또한 사회구성원 누구나 함께 고민을 나누고 참여하는 '열린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다시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이 불씨가 점점 커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명예이사장

정몽준

이사장 인사말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면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욕심이 넘쳐 자기만 살고자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이런저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아닌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다행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지닌 재물을 내놓아 누구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신 선친 아산의 유지를 받들어 살아가는 정몽준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관계 기업들이 마음을 모아 2011년에 세운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이 분들의 착하고 바르고 따듯한 뜻의 바탕 위에서 그렇게

착하고 바르고 따듯한 일을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그리고 온 누리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과 기회와 일과 성과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재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넓은 사랑으로 좋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사랑으로 좋은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사장

정리홍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건강한 젊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Youth, with their unlimited potential and dreams, are the future of our society. We at the Asan Nanum Foundation believe youthful passion and energy move society forward.

Asan once said that “those who believe that anything is possible will be able to achieve everything.” We believe Asan’s guiding principle is also applicable to today’s youth.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share Asan’s spirit with the young adults today: the passion to dream, the challenge to create, and the responsibility to share.

비전

VISION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aims for an open society that allows all its member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미션

MISSION

아산나눔재단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열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seeks to give young adults and those in need the skills and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dreams and become successful citizens.

핵심가치

CORE VALUES



꿈과 열정
Dreams and Passion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정
Identifying one’s dreams and passionately working towards a better future

도전과 창조
Challenge and Creation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
Fostering the spirit that creates change

나눔과 책임
Responsibility and Sharing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Living as responsible citizens by sharing and being compassionate

사업 선택 원칙

PROGRAM
DEVELOPMENT



역량개발
Capacity Building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Promote sustainable capacity development

사회적 파급효과
Social Impact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Focus on initiatives that effect broad social change

자생력 복원
Self-Reliance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Empower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to become independent

사업 진행 방식

PROGRAM
IMPLEMENTATION



책임성
Responsibility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Making bold ye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in innovative ideas

질적 성과
Performance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Emphasizing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of programs

투명성
Transparency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Open and accountable management of programs and activities



청년창업 활성화

Promoting Youth Entrepreneurship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에 꿈을 지닌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 청년 정주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assists young entrepreneurs who
aspire to be the next Chung Ju Yung.

아산나눔재단은 초기 기업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초기 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지닌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망한 청년기업가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대학(원)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례 개발로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할 Asan Entrepreneurship Review는 국내 Entrepreneurship 교육 인프라 구축과 Entrepreneurship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has created the Chung Ju Yung Angel Investment Fund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startups in their initial oper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through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s. The Foundation operates the fund in partnership with like-minded venture capital firms and angel investors. Also, the Foundation engages in a nation-wide search for promising young entrepreneurs through the Chung Ju Yung Start-Up Competition, which has grown into an annual celebration of youth aspirations. The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aims to develop high-quality case studies of Korean companies and entrepreneur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ith in-depth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Korean companies and entrepreneurs, the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stablishing a solid foundation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 but also promoting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among youth.

The Foundation also promotes youth entrepreneurship through additional education and networking initiatives.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발굴해 청년기업가로 키워내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12개 지역(중북지역 제외)에서 총 39회 강연을 통해 지역의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하였고 총 29개 팀에 총 상금 3억 1,100만원을 지급해 새로운 기업가 발굴에 앞장섰습니다.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2012년 2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등 초기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주영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대한 직접 투자 검토를 비롯해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로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0여개의 초기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MARU180

MARU180은 약 1,090평 규모의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이뤄진 창업지원공간으로 건물 전체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무공간, 교육, 투자, 네트워킹 등 창업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올해 4월 개관 이래로 예비창업가를 위한 협업사무공간형 카페(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2개의 엑셀러레이터(스파크랩, 퓨처플레이), 2개의 벤처캐피탈(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약 20여개 스타트업이 입주하였으며, 장기 입주 스타트업 중 4개 팀이 센터 입주 후 총 28억여원의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이벤트홀에서는 월 평균(평일 기준) 78%에 달하는 대관률을 보이며 매일같이 창업관련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창업생태계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ntrepreneurship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가 및 벤처기업에 대한 사례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san Entrepreneurship Review는 국내 실정이 반영된 전문 Entrepreneurship 교재가 부족한 현 교육 환경에서 국내 기업가 및 벤처기업의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학습을 이끌어 낼 것이며, 대학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례개발로 국내 Entrepreneurship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산나눔-JA 어린이 창업교육, 도전! 미래 기업가

‘도전! 미래기업가’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리더십, 도전정신, 의사결정 능력 등을 향상시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팀을 이루어 창업해보는 과정을 체험하고, 실제 상품을 제작·판매해보는 경험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몸소 습득하고, 성과발표회 캠프에 참가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후원사업

재단은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Start Tel Aviv 한국대회 주관 및 beLAUNCH2014, 프라이머 엔턴십, 스파크랩 데모데이, Startup Grind 등을 후원하였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비상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promotes initiatives and programs
that help open-minded, socially-aware young adults become
global leaders.

아산나눔재단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리더란,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소통할 줄 아는 국제적
인 감각과 봉사정신, 즉 공동체 의식을 지닌 인재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비영리분야 활동가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과 해외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펠로우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정인 아산서원을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t the Asan Nanum Foundation, we believe that a true global leader must not only be
professionally competent in one's field of expertise, but also be entrepreneurial, committed,
and globally-engaged.

In order to help young nonprofit practitioners on the global stage, the Asan Nanum
Foundation operates the Asan Frontier Academy and Fellowship programs. These
programs provide the necessary global training and experience for a new generation of
nonprofit leaders.

The Asan Nanum Foundation has also set up the Asan Academy, a leadership training
course with special emphasis in the humanities, in partnership with the As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The Asan Academy aims to nurture global leaders with strong sense of
national consciousness, based on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liberal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ics, multicultural perspectives, as well as traditions and the modernity.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국내 비영리분야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개발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비영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조직 경영에 대해 배우고,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를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구체화 하는 과정을 익히고, 선진 기관을 방문하는 해외연구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비영리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수강생들은 전략, 인적자원, 재무회계, 모금마케팅 등 비영리경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교육 콘텐츠 공유 및 국내 케이스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비영리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은 국내 NGO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넓은 전문성과 전문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비영리분야 종사자와 향후 비영리분야로의 진로전환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NGO/NPO에 1년간 교육 및 파견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펠로우들은 비영리 경영 및 리더십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NGO 활동가들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2014년 1월 파견된 제1기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들은 미국 워싱턴 D.C. 및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5개의 비영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임팩트 투자를 통해 중남미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Agora Partnerships, 지구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학생 및 직장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Net Impact,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구호 단체 180여개의 협의체인 InterAction 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글로벌 리더 양성 및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기업의 사업장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과 해외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글로벌인턴으로 파견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브라질, 벨기에 등 세계 23개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동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의 금융허브인 상해 푸둥, 그리고 동남아 최대규모의 조선소에서 연해주 평야의 농장까지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며 세계에 대한 견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아산서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아산서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아산서원 원생은 44주간 아산학사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역사와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수사학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인문학 교육과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워싱턴 DC와 베이징에 소재한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실무와 국제 무대를 경험하며, 전문가 · 교수 강연, 정부 및 국제기구 방문, 문화 시설 참관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아산서원은 동서고금의 우수인재 양성 모델을 착안하여 인문학적 소양의 인재,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아산나눔재단 임원진

- 명예이사장 정몽준 국회의원
- 이사장 정진홍 울산대 석좌교수
- 이사 김지훈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 안성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변호사, 정준 쏘리드 대표,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 감사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송기영 변호사
- 고문 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제1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 강연자 김길연(엔씨즈 대표), 김범진(시지온 대표), 김봉진(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중화(다음카카오 기획팀장), 김태우(퀵스 PM), 김호민(스파크랩 대표), 권일환(퀵컴벤처스), 명승은(벤처스퀘어 대표), 민경환(구글코리아 총괄), 민윤정(코노랩스 대표), 박재욱(VCNC 대표), 박수왕(소셜네트워크 대표), 안오준(카레클린트 대표), 양준철(온오프믹스 대표), 이광석(인크루트 대표), 이동형(나우프로필 대표), 이택경(엔젤투자협회 회장), 임지훈(케이큐브벤처스 대표), 유현오(제닉 대표), 윤자영(스타일쉐어 대표), 정기홍(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과장), 정수환(앱디스코 대표), 표철민(위자드웍스 대표), 한재영(티켓몬스터 CSO), 최승윤(오가다 대표), 최시영(구글코리아 매니저), 호창성(빙글 대표)
- 심사위원/멘토 김강동석(소프트뱅크벤처스 부사장), 강석훈(본엔젤스 파트너), 강신혁(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부장), 김유진(스파크랩 상무), 김일환(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 권혁태(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용길(네오플라이 센터장), 나성민(IMM인베스트먼트 수석팀장), 류중희(퓨처플레이 대표), 박정민(투썸인베스트 부사장), 박지웅(FastTrackAsia 대표), 손호준(스톤브릿지캐피탈 팀장), 백승권(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대표), 송은강(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신명철(킹스베이캐피탈 대표), 신재균(투썸인베스트 경영지원본부장), 윤건수(DSC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인철(마젤란기술투자 상무), 이경호(DSC인베스트먼트 팀장), 이지애(마젤란기술투자 과장), 이현채(Google EMEA HQ), 정상엽(캡스톤파트너스 팀장), 조성주(CCVC밸류업센터 센터장), 진성태(디에스벤처스 대표), 하태훈(DSC인베스트먼트 상무), 한동현(마이크임팩트 대표), 한재선(퓨처플레이 CTO), 홍상민(빅스트랜스 대표), Han Kim(알토스벤처스 대표)

MARU180

- 파트너사 김호민(스파크랩 대표), 류중희(퓨처플레이 대표), 송은강(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윤건수(DSC인베스트먼트 대표), 한동현(마이크임팩트 대표)
- 입주기업 강수남(모두컴퍼니 공동대표), 김동현(모두컴퍼니 공동대표), 김대웅(망고플레이트 대표), 김태현(사운들리 대표), 박수만(비트패킹컴퍼니 대표), 백승욱(클디 대표), 안세준(카페인 대표), 양주동(로렘입숨 대표), 오윤식(이스트몹 대표), 이정수(플리토 대표), 이충희(브레이브팝스컴퍼니 대표), 정세영(엔트리움 대표), 주시현(엠버스 대표), 최재호(드라마엔컴퍼니 대표)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강원(세종대학교 교수), 김도현(국민대학교 교수), 김태영(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희천(고려대학교 교수), 신중경(세종대학교 교수), 양혁승(연세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동원(고려대학교 교수), 이병희(한양대학교 교수), 이상명(한양대학교 교수), 이춘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종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명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종인(한밭대학교 교수)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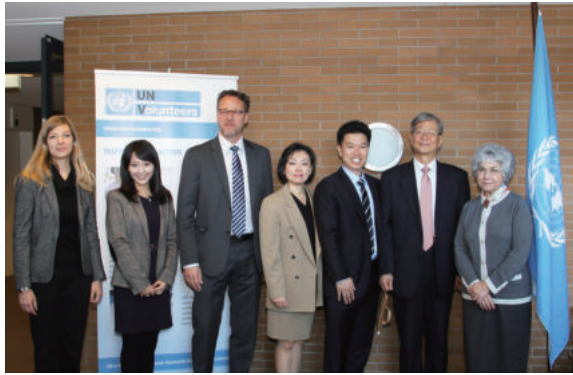
이봉주(서울대 교수), 김태영(성균관대 교수), 문형구(고려대 교수), 방대욱(다음세대재단 상임이사), 양진옥(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유영덕(태화복지재단 사무총장), 이재열(서울대 교수), 최재성(연세대 교수), 현용진(카이스트 교수), 김상범(SK 전략기획본부장)

청소년지원 파트너십사업(가칭) 운영위원

권찬(어린이재단 부회장), 김용득(성공회대 교수), 김진우(덕성여대 교수), 박경수(한양사이버대 교수), 박종호(기아대책 본부장), 이봉주(서울대 교수), 이상균(카톨릭대 교수), 이창호(아산사회복지재단 팀장), 최승희(평택대 교수),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하태훈(DSC인베스트먼트 상무)

아산나눔재단 직원

강혜진, 경은정, 김미경, 김민우, 김슬기, 김아람, 김아람, 김용민, 박민형, 이고은, 이승복, 이승태, 이형진, 이희윤, 임경진, 정남이, 차선주, 최유진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충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